



Field Research

2006년 초, 중국 동북부 탈북동포와 북한 북부 북음화를 위한 노력

2005년 12월 - 2006년 1월 아시아지역연구소 산하 NKFR 훈련팀 1기가
중국 동북부 지역에서의 Field Research를 바탕으로 작성한 주제보고서입니다.

2006년 초, 중국 북동북 탈북동포인

북한 북북 북음회를 위한 노력



I _ 서문

북한은 복음화를 1% 미만의 미복음화 민족이 살고 있을뿐더러, 국제 오픈도어즈 미션의 보고에 따르면, 사우디 아라비아나 이란 등 강성 무슬림을 제치고 수년째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 박해가 심각한 지역이다. 어려서부터 사상 교육을 통해 김일성, 김정일의 신격화 아래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들이 우상에 전심으로 경배 하도록 강요당하고 있으며, 행복과 희망이 아닌 증오와 복수를 꿈꾸며 자라야 하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당신을 정말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 정말 귀하세요.”라는 말을 듣지 못한 채, 기아와 빈곤, 인권 유린 등으로 인해 고달픈 삶을 이어가야 하는 이들이 살아 숨쉬는 북녘 땅의 영혼들에게 주님이 필요하다.

전 지구상에서 가장 복음이 소외되고, 차단되어 있는 이곳에도 주님의 복음은 내일이 아닌 오늘 마땅히 전해져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중국 북동부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 탈북 동포를 보내 주시고, 그들이 복음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다. 또한 북부 지역에도 제한적이지만 계속 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 2006년 초, 중국 북동부 탈북동포와 북한 북부 복음화를 위한 노력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하나님께서 남과 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결하게 회복하시고, 하나되게 하셔서 열방의 수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살리는데 쓰실 것이다. 그러한 대장정의 첫 걸음은 복음을 들어야 하는 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함께 기도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것부터 출발한다. 강도 만난 이웃과 같이 신음하고 있는 이들에게 생명을 나눠주기까지 사랑하는 좋은 친구가 되어줄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입은 우리 모두이기 때문이다.

II _ 중국 북동북 탈북동포 북음회

1. 문제의 제기

탈북이 대량화 되면 9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도 탈북동포들의 대부분이 중국 동북부(지린성, 랴오닝성, 헤이룽장성)에 은신하고 있다. 그들은 중국 공안과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의 단속 위협에 시달리고 있고, 의·식·주의 해결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지난 10여년 간 이들을 품고, 돌봐 준 이들은 중국의 조선족 성도들이었고, 이 일을 한국 교회와 미주 교회가 도와왔다. 그러나 도움의 손길은 여전히 필요한 상황에서 중국과 북한의 단속은 훨씬 엄격하고 극단적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반사적으로 탈북동포에 대한 도움과 관심은 예년에 비해 많이 줄어 든 상황에서 한국 교회(교계)는 어떠한 점을 살펴보고 노력해야 하는지 살펴 보았다.

2. 현재의 상황

(1) 탈북 동포의 분포와 현황

현지 탈북동포들의 증언에 따르면, 출신 지역별로는 변경 도강에 있어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지를 지니고 낙후된 함경북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한다.

분야의 특성 상 정확한 통계를 내는 것은 어렵지만 국내 및 현지 관련 사역자 분들에 따르면 대부분이 여성이며 그 비율을 70%이상으로 본다고 한다.

90년대나 2000년대 초반에 비해 그 수가 급격히 감소했다. 현지에서도 탈북동포를 만나는 것은 예년만큼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경 지대에는 밤을 이용해 북측 경비대를 돈으로 매수해 넘어오는 이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강을 따라 국경을 넘었을 때 산간 지대와 마주한다. 주요 도로를 검문과 단속이 엄중하기 때문에 산으로 들어가 토굴을 파고, 인근 민간 지역까지 내려와 곡식과 가축 등을 취해 양식을 얻기도 하며 열악한 주거를 통해 생존을 시도한다. 이 과정에서 절도나 상해 사건 등으로 인해 중국 측 민간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과거 탈북동포들이 많이 국경을 넘어오던 시기에는 조선족 사회도 온정과 인도적 측면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절도, 강도, 상해 사건 등 부정적인 사례들이 늘어나고, 도와주는 입장도 그리 넉넉한 형편이 아니라 인심이 각박해 진 상황이다.

도심으로 진입한 데 성공한 탈북동포들 중 사역자들이 돌보고 있는 이들은 1~2명씩 나눠져서 시골 혹은 도심의 민가에 은신하고 있다. 그러나 난방조차 쉽지 않은 등 이들의 주거 환경은 열악하다.

항상 감시의 위협 속에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어떤 이는 문 두드리는 소리나 발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벌렁거려서 견딜 수 없다고 눈물로 호소했고, 어떤 이는 해가 지면 집 안에 일체에 전등을 켜지 않아 빈 집처럼 보이게 한다고 했다.

(2) 중국과 북한 정부의 입장

중국은 1982년 UN의 '난민지위에 관
협약'에 가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이경제적 이주민이라면서 체포하여
제송환하는 등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
를 침해하고 있다. UNHCR이나 우리
원의 판단에 따르면 자국으로 돌아갔
경우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상당한 처
과 박해가 예상되는 경우는 난민으로



한
이
강
권
법
을
벌
인

정해야 한다. 탈북동포들이 진정 '경제적 이주민'인지는 중국 정부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
다. 다른 아이사의 이주민들은 난민으로 인정하고 대우하면서 북한에서 온 탈북동포의 경
우에는 단 한 명에게도 난민의 지위를 부여하거나 최소한의 보호와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
하지 않고 있는 중국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국제적인 분쟁의 소지를 제거한다
는 명목으로 신분 검색을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수많은 탈북동포들이 이미 북한으로
강제송환 되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2006년 내내 나아가 2008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
다.

공안 당국의 한 고위 관료를 인터뷰 한 바에 따르면, 정부에서는 이미 탈북자 분포 등에
대해 비교적 소상히 파악하고 있으나 조선족 관료들은 민족애적인 차원에서 특별한 범죄
에 연루된 자가 아니라면 단속을 적극적으로 하지 는 않는다고 했다. 다만 중앙 정부에서
색출에 대한 공문이 내려 오거나 긴급히 단속할 필요성이 발생하는 시기에는 기존에 파악
해 둔 이들을 습격하여 단속 성과를 올린다는 것이다. 특별히 한국 등 제3국으로 탈출하는
경우나 이를 돕는 이들을 체포하고 있으며, 중국 물가에서는 엄청난 액수인 수백달러의 벌
금을 물리게 하거나 감금, 강제송환 등의 처벌을

전시 여러민족 인민들에게 드리는 공 개 편 지

전시 여러민족 인민여러분:

우리들은 창시자의 공로에 노력하여 혁명가적 비범정열의정신을 발휘하여, 발전하고, 타격하여 그들의 장엄한 기업을 효과적으로 타격함으로써, 우리시 변경지안은정세를 위하여 적극적인 공헌을 하였습니다.

근년에 우리시 변경주민들은 비법적으로 국경을 넘어온 사람들을 동정하고 가변하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본을 주고 교용해 일을 시키다가 결국 송환이된 집에 갇혀있는 것으로 재산과 인신안전에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비법원경한 자들은 재물은 담내어 수단을 가리지 않고 불타우남을 쓰면서 떠났고 살인까지 하고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우리시에서 발생한 비법원경한자들이 재물을 강탈하고 살인한 몇차례 사건을 보면 그 수단이 참인하고 성질이 악렬하여 우리시 여러민족 인민군중 특히 변경현전의 인민군중들의 정신건강에 매우 큰 공포와 놀라움을 자아내어 우리들의 정상적인 생산, 생활과 학습원시에 엄청난 위협주고 사회치안온정에 큰 불리한 인자로 되고있습니다.

나라본 여가파 안전군중의 재산과 생활안전의 비법원경한 범죄자들에 대한 공화발자 않기 위하여 우리 공안기관은 전시 인민군에 신속히 입거나 변경외식과 국방외식을 제고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 자기 안전에 주의하며 전철된 모든 비법원경한 범죄자들과 지체공고 영용하게 두정할것을 호소합니다. 따라서 공안기관과 잘 배합하여 외식한 자를 단정하면 속시 보코하여 그민자들은 할수없 공안기관에 상송되거나 전파로 알려주거 바랍니다. 우리들을 사회치안온정에 공헌이 있는 분들을 교화하고 장려합니다.

공안기관에서 비법원경한 범죄자들에 하수하여 전대한 범죄를 받기을 정권될것을 인지하 알리는 바이며 동시에 비법원경한 사람들과 형사범죄자들은 받아들이고 본을 주고 교용하거나 그들을 감싸주는 일부분 사법들이 주동적으로 공안기관에 잘아와 문제풀 교래해야 한다는것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엄하게 처벌한다는것을 정중히 일리는 바랍니다.

전시 여러민족 인민여러분, 우리 모두 손잡고 일치 단결하여 공공히 대적하여 우리 의 신체정도로 우리시 변경지안 온정을 위하여 매개 공민이 마땅한 책과 의무를 잘 떠맡하셔서 더 많은 공헌을 합니다.

통성서공안국
정거전화: 110; 3222677
2003년 3월 30일

▲ 공안 당국이 배포한 탈북자 색출 협조 공문

는지 알 수 없는 외진 곳으로 보내져 그곳에서 비인간적인 생활을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죽을 때까지 감당해야 한다는 증언이 여러 차례 있었다. 다만 지난 10여년 동안 탈북한 사례가 셀 수 없이 많았고, 이들이 기아와 배급중단 등의 문제에 시달렸던 점을 보아 식량을 구하기 위한 단순 탈북의 경우에는 처벌의 수위가 초창기 보다 약화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어린 아이들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고아원에 강제로 보내져 다시는 부모님을 만날 수 없고, 철저하게 국가 어버이 정신 아래 자라나게 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3) 현지 조선족 사회의 분위기

역전, 민가 등지에서 수차례 설문을 한 결과 현지 조선족 사회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 예년 보다 민심이 많이 부정적으로 돌아선 편이다. 도심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고 있지 않지만 이촌향도 현상이 심각한 모 농촌 마을에서는 정부에서 암묵적으로 용인해 (대부분이 여성인) 탈북 동포들을 거두어 들어 농가에 지내면서 농촌 사회를 유지하는데 기여하게 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에도 북음적으로 건강한 삼자교회(정부공식허가 교회)가 많이 있으나 삼자적 입장은

하고 있다. 중국 내 외국인 감옥에는 직계 가족이 아니면 면회 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년 간 옥고를 치루고 있는 한국, 미국 국적의 기독교인이 매우 많이 수감되어 있다.

북한은 강제송환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 혈맹인 중국 측에 긴밀한 협조를 요청하여 정보 공유를 하고 있으며, 중국 동북부 지방에 국가안전보위부 요원들이 특파 되어 감시 활동을 펼치고 있고, 납치조도 공공연하게 보내고 있다. 심지어 탈북동포로 위장하여 탈북동포 보호 처소나 기독교 공동체를 초토화 시키는 일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

중국에 의해 체포되어 북한으로 강제송환 된 탈북동포들은 접촉한 대상과 횡수, 목적, 사상적 상태, 성분 등에 따라 노동단련대, 정치범 수용소 등에 가게 된다. 정치범 수용소에 가게 되는 경우 이웃 조차 어디로 가

신앙과 정부의 주장이 충돌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충돌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견해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특징이다. 종교사무조례 등의 자료를 검토하고, 당국의 담당자를 만나 본 결과, 중국 교회는 중국 정부가 탈북동포를 경제문제로 인해 불법 월경자로 규정하고, 체포하여 북한 측에 강제 송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교회는 일체 공개적으로 탈북동포를 후원할 수 없고, 마찬가지로 종교사무조례에 따라 외국교회는 중국교회를 공식적으로 후원하거나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에서 협력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소수일지언정 조선족 교회를 중심으로 비밀리에 탈북동포들을 돌보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시도는 끊임 없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이나 미주 교회의 돈을 바라고 이 일에 표면적으로 관계하고 있는 바람직하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 아직도 여러 사역자들이 탈북동포들을 긴급구호하고, 이른바 ‘학습’을 통해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다.

다만, 예수님을 전하고, 영접하게 된 이후, 복음적으로 양육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다 많은 선교적 연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만나 본 현지 지도자들도 복음적인 양육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자신과 탈북동포 영혼들이 복음을 영접한 이후에 이들을 복음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시설이나 환경이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4) 변경 지방(국경도시)의 상황

변경 지대의 상황은 단속이 심하다. 국경 지방 곳곳과 변경에서 도심으로 가는 길목에는 중국 공안이 간이 검문소를 설치하거나 수시로 순찰을 하면서 탈북동포 및 도강 사례를 엄중히 지키고 있었다. 함경북도를 바라보며, 중국-북한 간 차량용 다리가 개통되어 있는 한 지방 마을에는 있어 예년까지 한국인,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와 북한 측을 바라보곤 했는데, 현재는 그곳에 있던 정자가 파괴되어 있었고, 관리를 하던 이들의 부스도 폐쇄되어 있었고, 대신 회전식 CCTV 두 대가 설치되어 변경 지역의 반경 수km를 엄격하게 감시하고 있었다.

방문 기간에 김정일이 열차로 중국을 방문하는 등, 북한이 자초한 북핵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경제적 돌파구를 찾기 위한 몸부림을 엿볼 수 있었다. 제한적이거나 국경 지대의 다리를 개방하고, 중국의 보따리 상인들과 지원물품을 받아 들이고 있다.

(5) 여성과 아이, 고아의 상황



현지의 사역자 및 주민들의 보고에 따르면 탈북동포의 대부분은 여성이다. 그렇게 된 이유는 병영 사회인 북한에서는 남성의 이동성이 경적되어 있고, 이른 바 ‘인민 생활’이라 불리는 식량을 구해오는 일을 여성이 맡아야 하기 때문이다. 90 년대를 거치면서 북한의 식량

사정과 경제 상황이 극도로 악화되면서 많은 여성들이 탈북하게 되었고, 이러한 물결은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 언어 및 생활 적응 수단이 없는 이러한 여성들은 중국과 북한의 엄중한 단속과 수색을 피하기 위해 많은 여성들이 민가에 들어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몸을 맡기고 은신하게 되었다. 그러나 인신매매나 혹은 자발적으로 들어간 곳은 정상적으로 결혼을 하기 어려운 나이가 많거나, 몸이 불편하거나, 근로 능력이 없는 농촌 남성이나 빈곤 노동자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이들 사이에서 아이를 낳고 지내던 여성들은 날로 심각해 지는 단속 위협과 파출부일, 시장에서 굶은 일 등을 겨우 하며 근근이 어려운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그나마 가정에 남아 있으면 다행이고, 많은 수가 도망하거나 알 수 없는 곳에 은신하고 있다. 다수의 여성들이 극심한 불안과 정신적 압박으로 인해 심장질환과 우울증 등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여성들이 중국인들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은 중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다. 생명과 이름만 있지, “개만도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한 탈북동포의 하소연이 전달해 주듯 현지의 탈북동포와 그로부터 태어난 아이들은 사실상 중국에서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숨어 지낸다. 중국 법은 중국 공민과 외국인 사이에서 낳은 아이의 경우 중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어 있는데, 중국은 탈북 동포에게서 태어난 아이의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간헐적으로 가짜 신분을 만들어 중국인 친척의 호적에 입적 시킨 경우도 있었으나 이는 비용도 많이 들고, 또 다른 처벌을 감수해야 하는 어려운 일이다.

어머니 없이 자라나는 아이들은 주로 할머니와 아버지와 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모성을 경험하지 못해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둡고, 주의력이 결핍된 행동을 반복하고, 어머니의 이야기만 나오면 울거나, 때를 쓰거나, 할머니나 아버지를 때리는 행동을 보였다.

태어난 아이들은 신분이 없어,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없을 뿐 더러 의료 혜택도 거의 받을 수 없다. 어떤 아이는 장이 몹시 아팠지만 병원에 갈 수 없어 온갖 민간 생약을 먹고 겨우 살아났다고 했으며, 한 아이의 어머니는 아이가 많이 아파 중국어는 잘 몰라도 중국의 어린이 약 이름은 거의 외울 정도로 백방으로 약을 구하러 다녔다며 눈물로 아픔을 회자했다.

여러 아이들을 만나 보면서 한 가지 특색 있는 점을 발견했는데 어머니, 아버지 혹은 조부모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가 아이의 정서적 건강상태에 많은 영향을

까친다는 사실이었다. 방문해 본 여러 가정의 정황에 따르면, 양육자가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 아이가 더 많이 울고, 신경질과 짜증을 내고, 버릇 없이 행동을 하고, 주의가 산만했다면, 날마다 기도와 격려, “귀한 아이”이며, “사랑한다.”와 같은 말을 듣고 자란 아이들은 어려운 형편에서도 밝고 긍정적으로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아이들은 중국 북동부 지역에 산재해 있으나, 당국의 단속과 어려운 형편으로 인해 복음을 진정으로 만날 기회가 좀처럼 주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현지의 사역자가 순회하며 전하고 있는데 워낙 아이는 많고, 사역자는 제한 되어 있어 2 주~한 달 정도의 간격을 두고 방문하고 있어 보다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상태이다. 현지 사역자는 이러한



아이들에 대해 긴급구호 측면에서 난방비나 유치원, 소학교 교육비 등이 필요하고 기회가 되면 한글이나 중국어를 배울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고 전했으며, 능력이 된다면 호구(신분)를 만드는 절차를 밟는 것이 큰 도움이 되겠으나 이는 2008 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신분증 확인 강화 및 교체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쉽지 않은 면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어머니의 부재와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깨어진 가정에 예수그리스도의 치유와 회복이 절실하다.

(6) 긴급구호 상황

현지는 겨울철 영하 30도까지 육박하는 강추위임에도 불구하고, 양말을 비롯해 내의, 목도리, 모자, 귀마개, 외투 등 변변한 의복이나 방한구를 취하는 일이 쉽지 않아 동상과 저체온증의 위협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다. 이에 따라 NKFR 지체들이 지역 교회와 협력하여 모은 방한의류를 이민가방에 여러 개 담아 대량으로 전달했다. 이는 조선족 사역자 분을 통해 중국 동북부에 나와 있는 탈북동포들은 물론 북한 내지에 있는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긴급구호용으로 긴히 쓰였다.

역시 이러한 혹한 가운데서 돈이 없기에 난방이 원활하지 못하다. 중국 동북부의 주민들은 석탄가루를 구입하여 그것을 태우면서 난방을 하는데 그것을 살 돈이 없어서 매우 추운 날씨에도 냉방에서 지내는 가정이 대부분이었다.

식량이 충분한 중국임에도 넉넉하게 먹고 지내지는 못하는 형편이다. 당사자들의 말에 따르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잡혀갈 걱정을 하지 않고, 마음 놓고 일하면서 지내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한 상황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

(7) 현지 사역자 및 협력 정황

현지 사역자들은 탈북동포와 중국 조선족 동포 등이었으며 주로 조선족 사역자가 이일을 감당하고 있었다. 기대와는 달리 탈북동포는 워낙 위협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현지에 남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이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다.

중국 조선족 동포도 예년에 비해서 탈북 동포의 구호 및 복음화에 관여하는 사역자들이 많이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감옥에 가거나 막대한 벌금을 물릴 것을 감수하고 이 일에 관여하는 사역자들이 있다.

한국인이나 미주교회에서 온 사역자들이 직접적으로 이러한 사역에 연계된 경우에는 중국의 단호한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고, 수년 사이 중국에 인신구속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이들도 많다. 그러나 조선족 동포들은 중국 국민이라는 신분을 지니고 있어 북한 당국도 함부로 하지 못하며, 정식 절차를 밟으면 북한 내부에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다. 탈북동포를 만나 구호를 베풀고 숨겨 주는 일도 대가를 받고 한국이나 제3국행을 지원하는 경우(이 경우에는 3년 징역 이상의 중형)만 아니면 상대적으로 가볍게 처벌을 받고 있다.

현지 사역자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또 믿게 된 예수를 담대하게 전하지만 복음적 양육과 인격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도출되었다. 단 한번도 그러한 양육을 받거나 멘토링을 받은 적이 없기에 누군가 자신들을 돌보아 주었으면 좋겠다는 현지 사역자들의 고백을 들을 수 있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변에 찾아와 제멋대로 구는 오만하고, 번지르르한 한국 사람들의 모습은 싫다고 말했다.

조선족 동포들 혹은 현지의 선교 처소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동포들은 마땅히 그 지역의 지도자로 자라가야 한다. 서적과 교육 등이 필요하다. NKFR팀은 여러 가지 면에서 신앙적 권면을 전했고, 한국에서 한동대학교 학생들이 모아 준 신앙서적과 성경을 배포했다. 특히 중국에서는 직접 구하기 어려운 한국의 신앙서적과 교재, 주석성경은 현지 지도자들에게 큰 유익을 주었다.

3. 문제의 해결

(1) 긴급구호

현지에서 빈곤이나 두려움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먼저 예수님을 소개하려는 시도도 있었지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먼저 경제적인 면에서나 정치적인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한 은신처를 보호하고, 또 최소한 필요한 생계유지(구호 혹은 직업 알선), 의료 혜택, 교육 기회 등이 필요하다. “우리 같이 내일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에 나갑니까?”라고 울먹이며 묻던 한 탈북동포의 말을 통해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한 이들에게 동시에 무엇이 필요한지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2) 순회사역

이상적으로는 매 가정에 복음적인 양육을 할 수 있는 크리스천이 상주하면 좋겠으나현지의 정황 상, 복음적인 돌봄을 베풀 수 있는 이들의 숫자는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한 팀이나 한 사역자가 보다 자주, 보다 양질의 돌봄을 베풀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는 한국의 단기팀이나 단기, 장기 사역자들이 담대하면서도 지혜롭게 협력하여 현재 보다 는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도움을 베풀 필요성이 있음을 보았다.

(3) 물질보다는 결연, 의미 있는 물품

조선족 동포 사회가 한국에 개방된 지 15년 정도가 되어 가지만 어떤 면에서 조선족 선교는 돈에 의한 선교였고, 이는 선교에서도 물신주의를 부르는 어려움을 낳았다. 돈만을 바라보고 사역을 하거나 심지어 돈을 얻기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과장하는 경우까지 생겨나고 보고 되고 있다. 현지에는 아직도 그러한 분위기가 팽배해 있으나, 물질에 초연하게 사역하는 사역자들도 만날 수 있었다. 현지의 한 크리스천 중에는 돈을 받으면 현지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만 받겠다는 고백을 한 이도 있었다.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고, 결연 등을 통해 관계를 맺고 계속적으로 기억하며 물품이나 교육이나 의료 혜택 등을 받도록 도와 주는 것이 필요하다. 현지에 진출한 의료 선교팀을 통해 치료와 수술을 받게 해주거나, 교육을 지원하는 캠프 등을 여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건강한 복음적 신앙관을 담은 서적들과 주석이 담긴 성경이나 쉽게 풀어 쓴 성경 등은 그들이 복음적 신앙을 자라게 하는데 유익한 지원이 될 것이다.

(4) 현장 사역자와의 긴밀한 결연 및 교육 필요

잘난 한 사람, 한 민족에 의해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역적 특성에 따라 조선족 동포, 탈북 동포, 한국인, 혹은 미주인들이 연합하고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일들은 실제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심한 경우 분쟁과 상호 고발의 사태까지 일어났다고 한다. 또한 결코 발각되어서는 안되는 탈북동포 사역의 특성 상 소위 ‘점조직’ 형태로 도처에 소수가 산재해 있는데, 정보와 사역적 노하우가 공유되는 것은 큰 유익이 있을 수 있다. 중복 투자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장 사역자들은 좀처럼 몇 명의 한국 교계인과 연계되어 사역을 하고 있는지 밝히려고 하지 않으며 위에서 언급한 점조직 형태의 비밀스러운 사역인 만큼 제대로 정보가 공유되어 전달되지 않아, 중복 투자의 우를 계속해서 범하고 있다. 실제로 한 사역자는 처소 마련을 위한 집세가 필요하다며 여러 군데에서 거금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데에는 한국 교계에서도 ‘소영웅주의’에 따라 ‘내가 하겠다.’, ‘나만 알겠다.’는 정신이 강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엄청난 후원을 받는 사역자가 있는가 하면 고립무원의 어려움에서 극한의 한계 상황에 있는 사역자들도 있다. 한국 교계에서 정보망을 구축하여 중복 교류를 막고, 이에 대해 윤리적이고, 대승적인 교류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지에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들은 많다. 그러나 거대한 동북삼성 전체에서 정식 사역자를 배출하는 신학교가 심양에 단 한 개 있을 정도로 복음적 양육을 베풀 이들은 적다. 비록 중국의 법이 외국인이 신앙의 교육을 하는 것을 막고 있으나 건강한 복음적 신앙관은 중단 없이 중국 교계에 전해지고, 흘러 가야 한다. 이는 비단 북한 선교뿐 아니라 장차 백투예루살렘의 비전을 이룰 중국 교회가 복음적으로 건강하게 서는 것을 도울 한국 교회의 역사적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5) 대외적 활동

대외적 활동으로 북한의 처벌 공세 악화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중국이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나름대로 인권 문제에 대해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UN난민협약의 상식적 적용을 촉구하고, 탈북동포들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중국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 오히려 적극적이고, 비인간적으로 탈북동포들을 체포, 구타, 구금, 강제송환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조용한 외교를 표방하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UN, 미국 등 국제사회의 기조에 발맞추어 반드시 중국의 개선 노력을 촉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 부담이 적은 NGO를 통해 국제적 여론을 환기시키고,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 지원을 촉구해야 한다. 종합적인 탈북동포 보호 및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 이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당연히 필요한 과정이다.

(6) 한국 행 보다는 정착 지원

극심한 불안과 박해 등으로 인해 수많은 탈북동포들은 한국행을 원하고 있다. 향후 미국행 등을 시도하는 것도 확대될 수 있다. 그러나 중국, 북한은 단순 체류 수준이 아닌 망명을 위한 탈북의 경우, 대단히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일을 확대할수록 탈북과 한국행을 시도하다 실패한 이들이 받게 될 처벌의 부담은 커지게 된다. 한국인과 미국 국적을 지닌 이들도 한국행 등을 도왔을 경우, 직계 가족만이 면회를 할 수 있는 가운데 수년간의 징역형을 받거나, 심지어는 북한의 공작원들에게 납치된 경우까지 있어 이를 지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탈북동포 사역을 하는 북한, 조선족 출신의 사역자들의 경우 쉽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탈북동포들이 복음적 양육을 받은 후 북한으로 들어 가야 한다고 얘기한다.

(7) 떡과 복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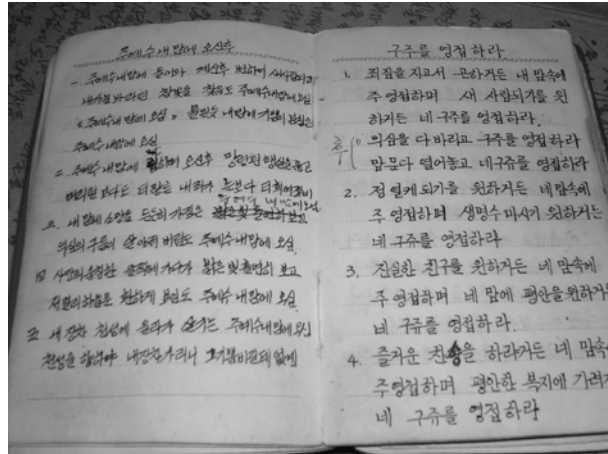
앞서 언급한 바 있지만 떡과 복음이 함께 가야 한다. 이 시대의 긴급 구호가 필요한 많은 지역과 마찬가지로 복음과 지원이 함께 전해져야 한다. 인도적 지원만을 모색하거나 오로

지 복음만 전하는 등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III_북한 북녘 북음화

1. 문제의 제기

전 지구상에서 복음이 가장 소외
핍박 받는 지역 중의 하나인 북
내부에도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
성과 같은 장벽이 있지만 우리의
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고성을 비롯한 가나안은 하나님
친히 파하셨던 것을 믿기에 우리
믿음의 고백과 지혜롭고, 진지한
이 필요하다. 실제로 북한 내부
에서 복음을 접하고, 키워가는 많



되고,
한
철웅
싸움
여리
꺼서
는
노력
지역
은

정황들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북한에 교회를 회복하기 원하시고, 동방의 예루살
렘이라 불리던 평양을 세계선교를 위해 다시 한 번 새롭게 하시기 원한다. 이러한 일들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 지 살펴 보았다.

2. 현재의 상황

(1) 북부 지역의 복음화 상황

북한 내부의 복음화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중국 내부에 탈북동포가 얼마나 존재하는가를
가늠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북한 내부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극심한 박해를 감수해야 하는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이다. 북한 정권은 한국 전쟁에서
입었던 막대한 피해(전 사회가 파괴되었으며, 인구의 1/10이 죽거나 실종되었음)를 근거로
미국을 침략의 괴수, 철저히 복수해야 할 철천지 원수로 여기고 평생 교육을 통해 그것
을 주민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 때 기독교나 예수는 악마적 미 제국주의의 상징 정도
로 여겨지고 있고, 선교사는 간악한 침탈의 앞잡이로 소개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전국
적이고 보편적이며, 진정한 복음을 접하고, 사랑을 입을 때까지는 쉽게 개선될 여지가 보
이지 않는다.

북한 사회는 정보가 철저히 차단되는 폐쇄적인 사회이기에 어떠한 것도 멀리, 넓게 전해
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일반 주민에서부터 고위 관료에 이르기까지 2명 이상의 감시
와 비판자가 존재하기에 좀처럼 복음을 접하거나, 접하고도 고수하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접하는 이들이 있고, 고수하는 이들이 있다. 이들의 증언을 간접적으로 전하자면, 김정일 정권은 ‘지상락원’이라는 구호가 무색하도록 인민들을 굶어 죽고, 비참하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믿는 자들을 통해 도움도 주셨다고 고백하는 이들도 있었다. 또한 한국 전쟁 이후에 일제시대부터 튼튼하게 세워졌던 복음적 기반이 조상으로부터 은밀하게 계수된 경우도 있었고, 근 10년 간에는 연변을 통해 한국, 미주 교회를 통해 북한 북부 지역으로 복음이 유입되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비밀리에 예배를 드리고, 전도를 하는 이들이 늘어났다.

구체적 사례를 언급하자면, 변경의 한 마을에는 수만의 인구 중 수십 가정이 예수를 믿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성경을 가지고 있는 가정에 방문하여 몰래 한 장씩 내용을 베껴간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에 나왔을 때 성경, 찬송, 주기도문, 사도신경 등을 수첩이나 작은 종이에 베껴서 몰래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들은 2006년 초, 현재까지도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는 북한 사람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하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북한 정권 유지를 위해 소모되는 기계 내지 자원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역시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이기에 진리인 복음을 접할 때 이들의 마음이 뜨겁게 열리며,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에 반응하는 것이다. 평생토록 “당신은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 정말 귀하합니다.”라는 말을 들을 수 없는 아픔이 있다.

(2) 변경 지대의 분위기

변경 지대에서는 김정일 정권의 지시 아래 엄중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경비병력을 매수할 수 있다고 한다. 북한군은 두만강, 압록강 등지에서 1~4선 정도로 치밀한 감시망을 형성하고, 곳곳에 치명적 상처를 입을 만한 함정과 덫을 설치한 다음 참호를 파고 은신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시활동을 펼쳐 몰래는 결코 이동할 수 없고, 돈으로 미리 경비병력을 매수하면 그의 도움을 통해 강을 건널 수 있다고 한다. 낮이면 고요하고, 경비대원들이 산책하거나 불을 때는 모습만 볼 수 있는 변경 지대는 밤이면 무척이나 바빠진다고 한다.

현지인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군 경비대는 열악한 군수 사정 상 세 발의 탄약을 총에 장전하는데 1탄과 2탄은 공포탄이고, 3탄이 실탄이라고 한다. 따라서 2탄을 발사하기 전까지는

적발 되어도 무조건 뛰다고 한다. 2탄이 발사되면 죽을 수 없는 만큼 체포되는데 이 때는 무지막지한 구타와 폭언에 시달리며, 어디로 가서 어떻게 될 지



알 수 없는 극심한 불안과 체벌에 시달리게 된다고 한다.

(3) 북한 정부의 입장

북한은 탈북자 문제에 대해 엄중한 단속 규정을 갖고 있다. 혈맹인 중국 정부에도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하여 중국은 현재 국제사회의 엄청난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탈북동포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탈북이 대량으로 일어났던 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을 거치면서 정치적 문제나 범죄를 범한 경우에만 극형에 처하고, 단순히 호구지책으로 생계형 탈북을 한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구타와 훈시 이후 노동단련소에 보내진다고 한다. 혹은 민가와 상당한 거리가 있는 야산 등지에 차려진 캠프에 격리 수용되기도 하고, 재범, 삼범이 되거나 악질로 규정되는 경우에는 다시 나오기 어려운 수용소로 보내져 인간 이하의 대단히 비참하고, 가혹한 형을 살게 된다. 특히 탈북 행위를 돕거나 한국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 경우에는 사형을 면하기 어렵다.

이 과정에서 탈북동포 어린이나 탈북동포와 중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국가고아원 수용시설에 보내져 철저한 사상 교육을 통해 국가만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자라나게 된다. 북한은 탈북자를 단속하는 경우, 절도·강도 등 실제로 범하지 않은 죄목을 덮어 씌워 주민들에게 알리며, 특히 기독교인의 경우에는 사형을 비롯한 중형에 처하는 경우에도 결코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임을 알리지 않는다고 한다. 이는 김정일을 위해서는 목숨을 바칠 이가 거의 없는데 복음이 대체 무엇이길래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가 하고 많은 이들에게 선교적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고위 간부 출신의 한 탈북동포의 증언에 따르면 김정일은 기독교를 두려워하며 지극히 경계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닌 악의 영에 대한 것임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4) 제한적 물류 교류

제한적이긴 하지만 두만강, 압록강 국경지대의 다리를 통해 보따리 상인들이 다니고, 무역 트럭이 드나들고 있다. 중국인들에 의해 중국 물자가 유입되고, 화폐가 통용되고 있으며, 심지어 한국에서 만든 물건들도 상표가 안 보이도록 처리된 채 반입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교류는 침체되어 있고, 생계 유지조차 쉽지 않은 북한 사회에 주민들이 최소한의 생존을 유지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5) 진행된 사역

90년대 나진선봉 지구가 개방되었을 때에 들어간 한국과 미국 국적을 지닌 이들은 다른 것은 배제하고 무조건 성경을 나눠주고 예수를 믿으라고 전했다고 한다. 북한 정권은 이러한 일을 파악하고, 나진 지구를 폐쇄하고, 적발한 성경을 처분했다고 한다.

이러한 역사적 과오를 거울 삼아 2000년대에는 같은 지역에서 미국 국적을 지닌 사람, 중국 국적을 지닌 사람, 한국인이 협력해 북한 주민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땅이 황폐화되어 도저히 농사를 짓기 어려운 그 땅에 비료공장을 지어주고, 콩 농사를 실시하며, 어린이들에게 매일 아침 빵을 만들어 후원하는 일 등을 했다. 또 여기서 난 콩으로 된장을 만들어 한국에 다시 판매하기도 했고, 교통 사정이 대단히 열악해 수십 킬로 미터도 쉽게 걸어 다녀야만 하는 이들을 위한 순회 버스 노선도 제공했다.

(6) 북한 방문 전도 사역

조선족인 현지 사역자들과 소수의 탈북 동포들은 북한 북부 지역 안으로 들어가 민가에 방문하여 교제하고, 양식과 약품을 나눠 주는 등 긴급 구호 활동을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소개하는 일들을 계속 이어오고 있다. 핸드폰이나 디지털 카메라 등 촬영 장비를 통해 찍은 사진들을 본 결과 이러한 이들의 수는 상당히 많았으며, 현지 사역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 내부 사정이 워낙 어렵고, 정권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있어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예외 없이 모두 영접한다고 했다. 그만큼 북한 영혼들의 심령이 가난해져 있다는 것이기에 지체 없이 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지 사역자는 지난 1년 사이에만 NKFR01 전해 준 수백 권의 성경을 북한 내부로 반입했음을 보고 했다. 성경을 원하는 북한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은 성경 한 권을 얻기 위해 길게는 수십 년에서 수년씩 기도했고, 생명을 거는 한 이 있어도 기독교의 진리를 담은 성경을 얻고자 한다고 했다.

또한 북한인에 맞게 제작된 전도지와 소형 라디오 등도 북한에 공급되고 있다.

북한 북부 지역에서는 중국제 핸드폰이 작동하기에 당국의 엄격한 단속을 피해 미리 전화로 중국과 북한 간에 연락을 취해 복음적 협력을 위한 접촉을 시도한다고 한다. 이 때 통신기기의 사용이 적발되면 수용소에 가게 되는 중형을 받게 된다고 한다.

(7) 중국 내에서의 전도 사역

도강증이라 불리는 합법적인 중국 방문증을 발급 받거나, 여권을 발급 받아 중국을 방문할 수 있다. 중국 동북부에는 탈북이 아닌 정식 북한 국적을 지닌 상태에서 방문한 이들의 수가 수천명에 이르는 등 상당히 많다. 이들 역시 복음을 접하는 것에는 예외가 없으며, 탈북

동포 보다 빈도가 낮긴 하지만 조선족 동포 성도들을 통해 복음을 접하게 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또한 기존에 믿었던 이들도 이렇게 합법적인 경로로 중국에 나오면 1달에서 3달 정도까지 머물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간에 복음적 양육을 받거나 학습을 하는데 사용한다고 한다.

3. 문제의 해결

(1) 현지 조선족, 탈북동포 사역자와의 긴밀한 연대

탈북동포 사역과 마찬가지로 각 사역 주체간 연합과 긴밀한 협력이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역이다. 특별히 생명까지 잃을 수 있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지혜롭고 신중해야만 한다. 각 주체간 협력 가운데 신뢰와 협력이 그 어느 분야보다 중요하다.

(2) 한국인 장기 순회 사역자

한국인은 장기 순회 사역을 통해 변경 지대에서 중국 국적을 가진 조선족 성도들을 돕고, 그들이 북한 방문 사역 및 직접적인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방문 간접적인 후원 사역을 한다.

(3) 방송, 전도지, 성경 사역

외부에서 반입된 방송이나 성경, 전도물을 접한 사람이 많이 있었다. 많은 이들에게 성경이 필요하다. 단 사이즈 등은 숨기기 위해 작을수록 좋고, 직접 양육을 받을 수 없는 환경이기에 양육을 받는 것이 좋다.

특수한 환경에서도 발견하거나 보관할 수 있는 특수 전도지와 북한인의 눈높이에 맞게 예수님을 설명한 전도지 등이 유익하고, 복음적 라디오 방송 사역도 계속 확대되어야 한다. 전도지를 발견하거나 방송을 들을 이들의 숫자가 많기 때문이다. 심지어 북한에서는 이러한 전도지나 방송을 세밀하게 모니터링하여 보고서를 쓰는 담당자들도 존재하는데 이들도 복음에 고스란히 노출되기 때문이다. 또한 여러 곳에서 만난 탈북동포들 중에도 북한 내부에서 전도지나 성경, 방송을 접한 이들이 많이 있어 중요성은 더하다.

(4) 구호 물자의 확충 떡과 복음

금번에 살펴 본 바와 같이 동절기에는 방한의복 등 구호 물자가 용이하다. 여러 사역자들의 일치된 견해와 마찬가지로 의식주조차 원활히 해결하기 어려운 이들에게는 떡과 복음이 함께 전해져야만 한다.

(5) 신뢰 그러나 검증, 부정적이지 않은 자세 견지

직접 방문할 수 있는 성질의 사역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실제적 진실인지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으나 직·간접적으로 협력하는 현장 사역자를 신뢰해야 한다. 한 조선족 사역자는 “끝까지 믿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부정적이지 않은 자세를 유지하되 그러나 물량화 등을 경계하면서 일정 수준의 검증은 필요하다.

(6) 지역 센터 개척과 견고화

변경 지역에 건립된 지역 선교 베이스가 견고하고,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도와야 한다. 이곳에 자주 방문하기보다는 이곳에 실제 방문할 조선족 사역자 분들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긴밀하게 협력하고, 서적과 물품 후원 등 필요한 부분에 전면적으로 협력한다.

긴급 구호와 성경 학습 등이 이루어지는 변경 지대의 가옥들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북한 내 교회 개척은 장래를 위해 시멘트 값을 저축하거나 북한 정부가 전용하기 일췌인 건물 짓기에 동참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변경 지역에서 이미 시작된 일이다. 북한 출신 인사들의 진술에 따르면 북한의 공식 교회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조차 설명할 수 없고, 북한 당국에서 순번을 매겨 임의로 세워 둔 정치요원일 뿐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성도는 북한에 존재하고, 그들은 조선족 성도들과 강을 건너 교류하고 있다. 보다 우선적으로 접촉하고 지원해야 할 곳이 어디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7) 북한 북부지역 경제 활성화

조선족 등을 통해 북한의 북부지역에 화폐와 생필품 등이 들어가는 등 경제가 활성화된다면 그들이 생존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이 과정에서 복음을 함께 전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

IV_기도제목

- (1) 북한에서 우상숭배와 폭압정치가 종식되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게 되기 원합니다.
- (2)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인 복녘의 영혼들이 복음으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 (3) 중국, 북한 당국이 강박한 마음을 버리고 인도주의와 영혼 사랑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 (4) 이 일과 관련된 모든 이들이 한 성령 안에서 연합하기 원합니다.
- (5) 조선족과 남한인, 북한인 간에 화해와 용서, 연합의 물결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 (6) 북한 선교 사역에 더 많은 이들과 교회가 함께 동참하게 되기 원합니다.

- (7) 현장의 한국, 조선족, 탈북인 출신 사역자들이 성령충만하기 원합니다.
- (8) 사역자들이 물질 등 여러 문제에 있어 시험에 들지 않기 원합니다.
- (9) 복녜의 영혼들은 사랑과 겸손으로 섬길 사역자들과 공동체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 (10) 공급되는 재정과 물품이 그것을 꼭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잘 전해지기 원합니다.
- (11) 북한 교회의 회복과 하나된 한민족이 세계선교를 위해 더욱 준비되기 원합니다.
- (12) 연합 중보기도 사역이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기 원합니다.

NKFR	North Korea Field Research
	생명을 나눠 주기까지 사랑하는 좋은 친구 되는 공동체 (요 13:34~35, 15:12~17)